



화선지에 구멍을 뚫어 만든 1982년작 '무제' 국제갤러리 제공

〈필묵〉

## 筆墨 없이 평생 종이와 싸운 동양화가

### 단색화가 권영우 개인전

국제갤러리서 내달 6일까지

최근 몇 해 사이 단색화 바람이 거세다. 단색화는 형상을 그리는 대신 특정한 행위를 반복해 평면을 표현하는 추상 기법이다. 반복된 수련의 과정이 동양의 정신 세계와 닮았다 하여 서양에서 더 인기다. 그런데 박서보·하종현·정상화 등 현재 단색화를 이끄는 작가는 대부분 서양화 전공자다. 최근 단색화 작가로 분류되며 다시 주목받는 화가 권영우(1926~2013)는 그중 보기 드물게 동양화를 기반으로 한 작가다. 1946년 서울대 미대 1기로 입학해 동양화를 전공했다. 지난 9월 영국에서 열린 '프리즈 마스터스'에 출품됐을 때도 '동양 기법이 가미된 단색화'라는 점에서 유럽의 단색화 컬렉터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그의 개인전이 서울 삼청로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그린다'는 행위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다른 단색화 작가들이 캔버스를 들고 실험할 때 권영우는 화선지를 들었다. 화선지를 바르고, 찢고, 자르고, 뚫었다. 필묵은 내려놓고 평생 종이와 대

면하면서도 그는 되뇌었다. "나는 동양화 밭에서 자란 사람이다. 그 밭을 잊어선 안 된다."

하얀 화선지를 동그랗게 뚫고 그 뒤에 또 다른 화선지를 붙였다. 뽀족한 도구로 종이를 긁어내고 물감을 번지게 한 뒤 다시 종이를 덧댔다. 붓으로 그린 그림이 아니라 종이와 몸으로 그린 그림이다. 1970년대 후반 파리로 건너가 살 때도 파리에 지천으로 널려 있던 캔버스 대신 고국에서 화선지를 공수해 작업했다. 장남 권오협(62·건축가)씨는 "아버님의 인생은 종이와의 외로운 싸움이였다"고 했다.

아들이 기억을 꺼냈다. "하루는 아버님께서 흑백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지요. 한옥 살 때인데 다섯 살쯤 된 제가 창호지에 손가락으로 구멍 뽕뽕 뚫어놓고 까르르 웃는 사진이었지요. '네놈 때문에 이 작품이 태어난 거야.' 아버님이 농반진반 말씀하셨습니다." 동그랗게 봉긋봉긋 뚫어 만든 그의 작품엔 아버의 사랑이, 한옥의 정취가, 지난 세월의 향수가 묻어 있다. 유진상 계원예대 교수는 "작가는 총탄의 흔적과도 같은 이 구멍으로 전후의 실존적 상처를 표현했다"고 설명한다. 전시 12월 6일까지. (02)735-8449 김미리 기자